

2011.04.11 미래정책연구실

□ 미국, 옥수수 재고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재배면적 증가

1. FINANCIAL TIMES(2011.03.31) 주요 내용

<옥수수 재고량 감소로 인해 곡물가격 상승>

- 지난 달 31일 미국 정부는 옥수수와 대두의 재고량이 예상보다 적다고 발표한 후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함.
 - USDA에 따르면 지난 달 1일까지 옥수수 재고량은 15% 감소한 65억 2,000만 부셸임.
 - 3월 30일 현재 미국산 옥수수와 밀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2배로 상승하였으며, 대두는 46%, 면화는 149% 급등함.
- USDA의 선임경제학자인 조셉 글러버(Joseph Glauber)는 “곡물재고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함.
-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개발도상국에서는 중앙은행이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등 곡물가격 상승이 정책당당자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음.
- 재고량의 부족과 중국, 미국의 곡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곡물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가축사료로 곡물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높은 옥수수 가격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옥수수 소비를 점차 증가시키고 있음.
- 미국 일리노이대학 농업경제학자인 대럴 굿(Darrel Good)은 “재고량 부족에 관한 발표는 앞으로 옥수수 소비를 점차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에탄올 생산과 사료용 곡물 수출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함.

<곡물가격 상승으로 재배면적 증가>

- 지난 해 호주와 중국 등 곡물 수출 국가들이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량 감소와 재고량 부족,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국가의 소득 증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겹쳐 주요 곡물가격은 급등함.
- 곡물가격 상승으로 미국 농민들은 재배면적을 늘리고 있음.
 - USDA는 올해 옥수수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5% 늘어날 전망이며, 밀 재배면적은 8%, 면화 재배면적은 15% 각각 증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특히 텍사스의 경우 면화 가격이 급등하면서 옥수수경작지를 갈아엎고 면화를 심고 있음.
- 주요 곡물가격과 수요 증가로 인해 미국 농가 수입은 증가하고 있음.
 - USDA는 미국 농가 수입을 집계한 결과 지난 해 농가 수입은 약 27% 증가한데 이어 올해에도 약 20%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함.

*자료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